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9

1998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레위기 · 로마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9

1998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레위기 · 로마서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지역사회 봉사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소서.
4.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6.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7.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8.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환난



불과 몇 주 전에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엄청난 폭우를 기억하십니까? 순식간에 수많은 이웃들의 목숨을 삼키고,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쌓아온 재물들과 집들을 일순간에 허물어뜨린 물의 세력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심판의 두려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40여 가정이 이 동일한 아픔과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한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신을 통해, 또한 피해성도들의 마음 속에 심겨진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모든 수재민 성도들이 빠른 시일 안에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실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은 그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약하기 그지 없는 죄인입니다. 그 크기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우주 속에서 한 개의 점보다도 못한 너무나 작은 지구,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에서 발생한 비극 앞에서는 이토록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교만한 자가 이 세상에서 뚝뚝거리는 한순간을 맛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작은 곤충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때야말로 우리 모두를 그 넓고 크신 구원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입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겸비한 마음을 품고 말씀 앞에 마음을 조아려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는 때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살피우시는 9월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998년 9월

위임목사 김성관

충현의 만나

1998년 9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로마서 서문

로마서는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끝마칠 무렵 “로마교인들”에게 보내기 위해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로마교회는 박해로 인해 피로 얼룩진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사실 로마교회는 바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바울의 가슴에는 서바나(지중해 동쪽의 스페인)를 선교하기 위한 선교 전략상 항상 로마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선교 비전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했고, 그 분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 그의 전생애를 움직여 놓았다. 그 복음을 서방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로마교인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오면 복음 사역에 협력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충당하기 위해 마게도나와 아가야의 이방 기독교인들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롬 15:25-28).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은 비전”이 그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몇 가지 동기가 있다. 첫째는 서바나 선교를 위한 전략상 로마 방문을 준비케 하려는 목적이다. 둘째는 구원의 도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훈을 가르칠 필요성을 느껴서 기록한 서신이다. 대부분의 서신들은 교회의 문제성을 다루기 위해 기록되었는데, 로마서

는 그렇지 않다. 단지 성도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체계화시켜 주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대한 논문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는 유대인이거나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다(1:16-17).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은 죄의 그늘 아래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각성시키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생제사”를 준비하셨으며,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피력하고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의의 병기”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로마서를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점검하고 “믿음의 삶”을 향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내용 흐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1:1-17)

죄 아래 있는 인류(1:18-3:20)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3:21-5:21)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의 삶(6:1-8:39)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9:1-11:36)

믿음의 삶(12:1-15:13)

하나님의 일꾼들(15:14-16:27)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18:5)

레 위기 전체는 종교생활에 관계된 법들이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18-20장에서는 이례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여러 규범들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절은 그 서론격으로 애굽과 가나안의 우상 숭배 및 그들의 음란한 성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으신 여호와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실제적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4-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유명한 곳으로 성경에서는 불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사 19:3; 렘 46:8-9).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 풍속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그들의 구원을 무위로 만들어 버리는 큰 범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약속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성도가 죄악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에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방 풍속을 좇지 마시다.

▶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7 ...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 (18:30)

1 5절에서 애굽과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음란한 성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경고를 하신 후 6-23절에서는 근친상간의 금지 내용과 각종 타락한 성행위 및 우상 숭배 금지규정을 말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24-30절은 위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따르는 형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이란 근본적으로 가정을 통한 종족의 보존, 사랑의 나눔을 위한 신성한 육체적 결합으로써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성의 사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결혼의 법과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분명히 최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세는 6-18절, 그리고 19-23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이 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애굽과 가나안에서는 골육지친끼리의 결혼이 성행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부일처제 및 가정의 위계 질서를 파괴하고 극도의 성적 문란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 생활을 무조건 최악시 해서도 안되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극도의 성적 타락이 있었을 때에 롯의 가정만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이 타락했던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성적 타락상에 동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결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해서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 기도 제목 / ① 순결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19:2)

성 도덕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한 전장에 이어서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법도와 사회규범에 관해서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9-1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규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그 당시에 십계명 중 제2계명(출 20:4-6)과 관련된 우상 숭배 금지규정은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 등 주변 이방국가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이스라엘 내의 사회적 규범에 우선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황이 달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규범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에 관한 규례(3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킬 법도에 관한 1-8절의 교훈에 이어서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9-18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우상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며 아울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맙시다.

-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 (19:37)

본 문은 19장의 결론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지켜야 할 규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부정한 성 관계에 대한 금지(19-22절),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시기 문제(23-25절), 이방의 우상 숭배적 풍속에 대한 경계(26-31절), 노인 공경 및 타국인에 대한 보호 규례(32-34절), 그리고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명령(35-37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공정한 거래의 내용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세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눅 12:7). 이와 같이 세밀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나 각종 비리들은 사회조직이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부패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죄악된 심성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 부의 지나친 편중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죄된 모습을 지적해야 하며 인간의 모든 욕심과 더 많이 쌓기를 원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인생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을 매순간마다 기억하며 따르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나는 너희를 거룩케 하는 여호와니라”(20:8)

본 장은 18, 19장에 이어서 이방인의 악한 풍속을 본받지 말라는 경고로 가증히 여길 우상 숭배, 마술, 근친상간 등의 죄악을 경고하는 동시에 이를 범한 자들에게 내릴 구체적인 형벌까지 선고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특히 18장과 19장에 이미 언급된 규례들이 반복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18장, 19장에 열거된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범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형량과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는 죄질이 중하여 사형에 해당되는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여호와 유일 신앙으로 굳게 결속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트리는 범죄 행위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같은 수준으로 비하시키는 신성 모독의 죄입니다. 따라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사형이 구형되었으며,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이어서 10-20절에서는 여러 유형의 간음에 대한 금지와 그 형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금한 간음을 행한 자들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었는데, 이는 성 윤리는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결한 여호와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 때에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찬송 / 369장 본문 / 레 20:22-27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20:26)

거룩이라는 주제가 레위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거룩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를 예수님께 소속시킬 때 나는 주님의 소유물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과 가치관과 행복의 개념이 다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사고와 취향과 행동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구별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다르시고 세상과는 어떻게 다르신지를 빨리 배워서 알게 되어야 나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쫓겨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거룩하지 못하면 가나안에서 쫓겨났던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 주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③ 충현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리는 교회로 세워 주소서.

·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21:4)

레 위기 21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규례의 핵심도 여전히 거룩입니다.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므로 모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에게 더욱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거룩함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8, 15, 23절에서 거듭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 귀에도 강하게 들려옵니까? 왜 저에게 그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나를 기어코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시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신뢰합니다.

1절에서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므로 시체를 가까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직계 가족의 시체는 예외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나마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세상과의 철저한 격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할 것 다하고 가질 것 다 갖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서도 거룩한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나 자신이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부분이 불완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 세상의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찬송 / 216장 본문 / 레 22:1-16

“...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 (22:2)

22 장에서는 하나님께 바친 성물, 곧 제사 음식과 거룩하게 다룰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성소와 백성과 제물이 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 모든 규정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보여 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해져야 함을 알려시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2절을 다른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기도문의 첫 기도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부정이나 부주의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나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3. 4절에서 부정한 몸으로 성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아니라 자신이나 또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또한 날마다 마음과 행동이 거룩해야 합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것을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절에서 외국인이나 손님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거룩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¹⁰ 열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2:19)

22 장의 후반부에서 흠없는 제물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물 자체가 흠이 없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흠이 없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히 9:14).

하나님은 흠이 있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흠이 없는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며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하여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무흠한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실 뿐 아니라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드러져야 합니다.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흠이 있는 제물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바로 이처럼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내 모습을 이대로 내어놓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제목 / ①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만들어 주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와 절기는 이러하니라.” (23:2)

23 장은 이스라엘의 각종 절기 규례들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절기들은 구속주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여러모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대속의 회생으로 재창조와 참된 안식을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날로 승화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회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데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써 지금의 교회를 통한 훈련과 동일합니다. “여호와와 안식일” “여호와와 유월절” “여호와와 무교절”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누릴 절기로써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로 주시는 축복과 구원의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유월절도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놓여나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예표입니다. 나는 지금 사단의 억압에서 자유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새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10절에서 21절 사이에 첫 이삭이 바쳐진 후 우리 모두가 수확(구원)되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절기를 주셨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 안에서 늘 안식을 얻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칠일 동안 지킬 것이라.” (23:34)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7월은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1월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에 해당됩니다. 이 달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 가장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며 민간력으로 1월 1일로 이때 나팔을 불어 신년이 왔다는 것을 알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나팔소리를 통하여 더욱 더 신년의 기쁨과 함께 근신해야 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속죄일은 종교력 7월 10일에 지켜졌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속하게 됩니다. 속죄일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근신하며 노동을 금하는 성일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로 종교력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현재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간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에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곧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과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구원도 주님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감람을 찧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24:2)

본 문 말씀에서는 성막 기구 중에 매일 정리해야 되는 등불규례와 일주일마다 한번씩 교체 정리해야 할 진설병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름은 아주 순전해야만 하는데 보통 기름은 정제되지 않은 채로 사용되었지만,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름은 감람열매만을 사용해서 기름을 짜고 그 기름을 몇 번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얻어낸 순수한 기름이었습니다. 성소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순전한 기름으로 순전한 순금등대에서 밝게 비추어져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세상의 불순한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순전한 성령의 기름으로 불이 밝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떡인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번씩 새 것으로 교체되어야만 하는데 마찬가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도 새로워야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12개의 진설병이 이스라엘 전체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यो.”(24:15)

이 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진중에서 다투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훼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훼방하며 저주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뜻하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고 저주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저주하며 훼방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그의 머리에 안수하게 한 후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의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훼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였던 것입니다. 그 처벌이 엄중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런 류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범죄도 엄하게 다루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경건을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볍게 다루어지기 쉬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고의적인 불신앙은 경계해야 될 죄악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교회 안에서 불신앙을 분별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선한 양심을 주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25:10)

하 나님께서서는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백성들은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며 그 수확을 거둘 수 있었지만 제 7년에는 아무것도 파종하지 않고 땅을 쉬게 했고, 그 해의 수확물은 가난한 이웃과 들짐승들의 식물로 배려하였습니다. 이런 안식년이 7번째 되는 다음해를 희년이라고 하였습니다. 희년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이때에도 씨를 파종하고 경작하는 일을 하지 않고 노동으로부터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또한 희년을 시작하면서 속죄일을 지키게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의 관계, 노동으로부터의 안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원래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원래 기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당시 지파별로 나누었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사고 팔 수는 있었지만 희년이 되면 원소유자에게 돌려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희년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안식을 취하게 하셨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물질적인 자립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 이웃과의 평화의 관계,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 땅에 희년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7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 (25:36)

본 문은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동족에게 이자를 받기 위하여 돈을 빌려 주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또한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가난하여 동족에게 종으로 팔렸을 때는 그를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품꾼으로 대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은 회년이 되면 가족과 함께 무조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방인이 부유하게 되어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부릴 때 그 종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부유하게 되면 언제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회년이 되면 무조건 종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년 전에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주인에게 치르어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난한 동족을 상대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악덕을 미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강조점은 동족을 압제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고 억압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쉽게 억압당하며 쉽게 착취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존되며 보호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들은 사회적 신분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약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약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약자를 돌아보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26:3)

예 수님의 교훈 가운데 집짓는 비유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요 반석 위에 짓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규례와 계명을 지키게 될 때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과(5절) 평화를 누릴 것(6절), 그리고 악한 것들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6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규례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계속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12절). 이것은 관계성을 말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고전 1:25).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 너희가 내게 청증치 아니하여 ...”(26:14)

하 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지 않을 것
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며 18, 21, 23, 27절에는 칠
배나 엄한 벌을 내리실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게 엄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
엘 백성들을 주변의 부족들과 구별지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
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려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자들
입니다. 멸망받을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
을 본받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다가는 멸망
에 이르는 결과에 빠지게 될 것을 가르치시면서 조심하도록 하기 위함입
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순종을
택하게 됩니까, 아니면 불순종을 택하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
씀을 귀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것을 지키라는 잔소리로 생각
을 합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불순종의 열매는 패망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26:44)

의 인과 죄인을 비교해 볼 때 가장 차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고, 의인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벌주실 것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그 계명과 규례를 어기고 범죄하여 앗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오래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빠진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40절에 보면 자기의 죄, 열조의 죄, 거스린 허물을 자복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41절에는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에 대한 형벌을 순순히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새롭게 반응하십니다.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며 미워하거나 아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44절).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45절).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한 회개와 죄짓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새롭게 바라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27:8)

이 스라엘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서원은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저한 약속이었습니다. 첫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에 맞는 서원을 하게 하십니다. 가난하여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하여 드리게 하였습니다(8절).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맞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는 것은 분량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삼상 6:7).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에 대하여 변개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10절). 일단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은 서원한 사람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13절에 무를 때의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경우에 해당되며 결코 함부로 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마 5:34). 이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기분대로 약속을 바꾸거나 변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신실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하면 당신의 신실함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잘 준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당신 역시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정직과 신실함의 옷을 입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27:30)

본 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소산물의 십분의 일을 바치도록 명령하십니다.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모든 소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통해서 얻은 수확물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드릴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요 은혜라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일조에 대하여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규례이지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주시며 곡식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유지시켜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십일조에 대해 구약시대의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일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십일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걸하지도 않으십니다. 적선하듯이 남으니까 드린다거나 억지로 드러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고후 9:7).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십일조를 드리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진행하는 인디안 선교에 필요한 교회와 진료소를 건축하게 하소서.

“...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1:7)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실상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 외에 다른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의지도 역시 주인의 의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일치시켰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자신의 주인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종으로서 힘써 전하기를 원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福音)이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복음이란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3절)과 죽음과 부활하심(4절)에 이르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직분을 맡았습니다(5절).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께 붙들린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진행하는 성경공부를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 할 수 있는 대로 ...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15)

바울은 로마교회를 세우지도 방문하지도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울 자신이 로마의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를, 더 나아가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자신은 복음에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순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9절). 바울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으로써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당시 세계의 심장이요 수도인 로마에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나누어 줄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개인적으로 로마인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10, 11절).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우리는 본문 14-15절에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복음에 빛진 자'라고 했습니다. 빛진 자는 자신에게 지워진 지불의 의무 때문에 늘 독촉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빛진 자로서 그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자에게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무엇보다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단순히 바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인되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행 23:11).

복음 전파는 빛을 갠야야 하는 것처럼 시급히 이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직 복음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원주민 선교에 전념할 수 있게 하소서.

“...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1:32)

하 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치 못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18절).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분명한 것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타고난 내적 감각(본능적 직관)은 양심입니다(19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20절).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 감사치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22-23절).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버려두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버림받은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교만과 욕심 가운데 그대로 버림받음으로 그 가운데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롬 8:6)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범하는 죄가 어떤 것입니까? 불의, 음행,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악함, 무정함, 무자비함 등과 같은 것입니다(29, 30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캄보디아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2:1)

이 땅 위에는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직 스스로 정한 자신의 도덕적 규율을 따라 양심적으로 살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매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도덕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도 자신 또한 그것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자신도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절). 도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벌과 같은 것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4절). 물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간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4절).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6절). 베드로 사도가 “이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가 되었다”고(벧후 2:9)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원칙은 곧 복음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요 12:48)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2:28)

종교인들은 종교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또한 자신도 종교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전형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언제나 자신들의 생활을 위한 도구나 악세사리 역할밖에 못합니다. 자신들이 선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대면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거절하시리라고 상상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합니다(17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도 익숙합니다(18절).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고백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와 같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 그들의 구체적인 외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적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도적질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도 도적질 합니다. 저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자랑하고 할례 행한 일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랑하던 할례가 무효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25절).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입니다(29절). 또한 의롭다 함을 얻는 일이 자신들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엡 2:8, 9).

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3:9)

지 금까지 유대인의 죄악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입니다. 첫째 반론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맡은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말씀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 맡은 특권을 그들이 잘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특권은 무조건 주어진 은혜였는데, 마치 형식적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율법의 참뜻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을 버렸다면 그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참되셔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셋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나쁠 게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답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더 낫다고 변론하지만 나음이 없고 헬라인과 마찬가지로 다 죄 아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성경의 고발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특권 의식을 내세운다든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 자체가 죄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깊숙히 숨어 있는 죄성을 알게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3:21)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진술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보여 주신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율법의 의로써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이를 믿는 자를 구속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큰 가치가 있어서 그 대가로 당연히 구원을 지불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그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은혜에 감격할 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는 죄인들을 길이 참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자신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구원을 얻어 믿어지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합니다.

율법의 의는 우리에게 좌절을 주지만, 믿음의 의는 구원을 줍니다.

▶ 기도 제목 / ① 믿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괴홀임 없이 복음으로 통일 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4:13)

본 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교리가 구약에도 있었음을 보여 주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사를 세워가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의로운 행실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육체는 없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믿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을 믿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후사를 세우시는데도 이와 같은 믿음의 법도가 적용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로써 후사를 세우간다면 하나님의 후사로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후사를 세우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후손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태가 죽음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법도는 구약시대에도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5:1)

본 문은 칭의로 말미암은 결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화목제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두번째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대상들로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왕자의 차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실 것이기에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이끌어내고, 인내는 연단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연단된 성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은 바 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삶은 기쁨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속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화목됨을 인하여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게 하소서.

“...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5:18)

본 문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 모두의 파멸을 초래한 아담의 타락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더 큰 사건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시발자는 아담이 아니고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고 아담이 이에 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 위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적인 대표자가 범죄함으로 지체가 되는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졌고 낙원에서 추방되었으며 모든 육체에 사망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받은 우리들의 파멸은 엄청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들의 구원은 훨씬 더 큼니다. 아담의 한 범죄로 사망이 우리 위에 군림하였으나 예수님의 한량 없는 사랑이 우리들에게 넘쳐 흐르고 그의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돌려져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 죄의 사면만 확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의까지 확보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들에게 임해진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그 의의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의 영향력 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영향력이 더 큼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소서. ② 9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0월에도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시 편

서 문

하나님께서서는 깊고 오묘하신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다양한 형태의 글들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말씀들, 격언의 형태로 기록된 잠언, 그리고 시(詩)들이 그것입니다.

시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서는 때로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시편을 소리내어 읽음으로 좀 더 하나님의 가슴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시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구법(두번째 행이 첫번째 행을 받아 부연하거나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형태가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은 총 다섯 권의 책으로 분류됩니다. 1-41편, 42-72편, 73-89편, 90-106편, 107-150편. 이 시들 중 어떤 것들은 공적인 예배를 위해 씌어졌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심정을 아뢰는 형식으로 씌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은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들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그분과 시인 및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각 시편마다 한 가지 진리의 각도를 취하여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속한 시들의 다수는 다윗이 기록한 것이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나 성가대의 지휘자들, 심지어 모세가 기록한 시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선 1편에서 72편까지를 묵상하고 그 중 일부(다섯 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성

제1권(1-41편)

제1권의 주요 저자는 다윗입니다. 기본 내용은 예배의 찬송들로써 신학적으로는 창세기의 인간 및 만물의 창조가 주요 배경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2권(42-72편)

2권에는 다윗의 시들 외에도 고라의 시들이 등장합니다. 이 시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학적으로는 출애굽기의 구원과 구속이 주요 배경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3권(73-89편)

3권의 주요저자는 아삽입니다. 3권도 2권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는 분위기를 담고 있으나, 신학적으로는 주로 레위기의 예배와 성소가 주요 배경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4권(90-106편)

4권의 저자들은 주로 익명의 시인들입니다. 4권은 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민수기의 광야 방랑생활이 주요 배경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5권(107-150편)

5권의 일부는 다윗이, 일부는 익명의 시인들이 기록하였습니다. 5권 역시 4권과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는 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신명기의 율법과 찬송이 주요 배경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제 1 과

시편(1)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찬 송 / 377장

읽을 말씀 / 시 1-20편

공부할 말씀 / 시 1편

먼저 읽기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편 1편을 시편의 '대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보여 주는 중요한 창문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롬(Jerome)이라는 분도 시편 1편을 가리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시편 1편은 나머지 전체 시편의 인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 인간의 현세적인 축복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축복과 저주 등이 그러한 전체적인 구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배척의 태도를 취하고 자기의 길을 정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인으로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길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편 1편의 악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언급하신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에 있는 자와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에 있는 자에 관한 언급이나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배척하는 자들의 태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들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1절)
2. 복 있는 사람이 '힘써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2절)
3. 복 있는 사람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3절)
4.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4절 상반절)
5. 악인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4절)
6. 악인의 결국은 어떠합니까?(5-6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악의 길은 점진적으로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의 꾀를 '쫓게 하다가', 죄인의 길에 '함께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악의 길에 점점 더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음주 습관(사람이 술을, 술이 술을, 술이 사람을)이라든가 성적인 유혹(텔레비전이나 잡지 등에서 보는 음란물들에서 지속적인 상상으로, 그리고 결국은 실행으로), 혹은 미움(질투나 경쟁심, 혹은 마음의 상처로부터 시작하여 상대의 인격에 대한 의심에 이르고, 결국은 관계가 단절되거나 상대에게 해를 가하는 데 이르기까지)의 점진적인 강화과정과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인)은 이 과정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거나 현재의 생활에서 당신은 어떠합니까?
2.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지속적으로) 묵상(기도하면서 주의깊게 읽고, 깨닫고, 나의 생활 속으로 적용함)하십니까? 만일에 못하고 있다면, 말씀 묵상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 묵상은 하지 않으면서, 나의 모든 길이 '행통'하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2 과

시편(2)

나의 목자,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찬 송 / 442장
읽을 말씀 / 시 21-40편
공부할 말씀 / 시 23편

먼저 읽기

시편 23편은 예수님을 믿는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연세가 드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는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으로 작곡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또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시 전체에 큰 위로와 평안함이 넘칩니다. 이 위로와 평안은 참 목자,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됩니다(요 10:11, 14). 그는 '목자장' 이시며(히 13:20), '양들의 대목자'가 되셨습니다(벧전 5:4). 또한 이 평안과 위로는 궁극적으로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소망' 속에서 확증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올라가신 그리스도(요 14:1-4)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쓴 다윗이 목동 출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담고 있는 목가적인 정겨움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

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시인(다윗)으로 하여금 어떠한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습니까?(1절 하반절)
2. 목자가 양들을 위해 하는 일들이 네 가지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2-3절에서 찾아보십시오.
3.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4절)
4. 1-4절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룬다면, 5-6절은 풍성함이 넘치는 집의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다룹니다. 집주인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5절)
5. 결국 시인이 확신하고 소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6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자신이 부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꽤 명망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던 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모든 풍부함이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활에서 부족하다는 생각과 넉넉하다는 생각, 불만과 만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까?
2.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므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목자는 내 침체된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목자는 자기의 영광스런 이름을 위해서 나를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곧 내가 방황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이러한 구체적인 보살핌을 맛보고 계십니까?
3. 여호와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여호와와의 집에 거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사랑)하심이 나를 따를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지 하겠습니까?

제 3 과

시편(3)

영적 침체의 원인과 치유

찬 송 / 464장

읽을 말씀 / 시 41-60편

공부할 말씀 / 시 42, 43편

먼저 읽기

시편 42편과 43편은 본래 하나의 시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이 후렴구로써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속에서 시인의 영혼은 심히 낙망이 되어 자기 안에서는 도무지 안정을 얻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건한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께 서도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구절들을 인용하셔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 라고 고백하시기도 했습니다(요 12:27; 막 14:34). 그런데, 이 시편 42, 43편에서 감동적인 것은 이 시편의 저자가 세번씩이나 자신의 낙담하는 처지에 회의를 품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영적 침체의 이유와 그 치유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생생

하게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으로 아마도 예배 찬송자나 성전 문지기였을 것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시인은 현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 1절에서 -

2) 3절 하반절에서 -

2. 그의 영혼이 깊은 침체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2, 4절에서 -

2) 3절 상반절, 10절에서 -

3.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싶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 9절 -

2) 43편 1-4절 -

-
4. 시인은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후,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42편 5절, 11절, 43편 5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본 시편들에서 시인이 겪고 있는 영적 침체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예배의 기회를 상실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개인적인 잘못 때문에 도피자가 되었던, 아니면 국가적인 재난으로 다른 지역으로 피난해야 했던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으로 인해 심히 슬퍼하고 울부짖습니다. 어쩌면 '거룩한 슬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자주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 영적인 침체를 겪곤 합니까? 시인이 겪는 영적 침체의 원인과 우리가 겪는 영적 침체의 원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2.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악의에 찬 비방을 늘어놓는 자들로 인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 시인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확신에 찬 믿음으로 힘내어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낙심하거나 불안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당신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주로 어떻게 합니까? 행여 너무 감정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위로만을 갈망하지는 않습니까?

제 4 과

시편(4)

은총의 추수를 위한 노래

찬 송 / 30장

읽을 말씀 / 시 61-72편

공부할 말씀 / 시 65편

먼저 읽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어떤 시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도 시인으로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기이함을 보면서 많은 시들을 지었습니다(8, 19, 29편 등). 시편 65편에서 다윗은 자연만물 위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풍부하신 은택을 바라보면서 추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창 8:21)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내리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추수를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올 때, 먼저 자기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고 감사의 노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2, 3절). 오직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며(5절), 자연을 그 손 아래 두셔서(6-8절),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9-13절).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함께 본문 생각하기

1.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절)
2.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4절)
3.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까지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5절)
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기 전에 친히 준비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8절 하반절 - 9절, 10절)
5.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결국은 어떻게 묘사됩니까?(13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최근에 있었던 기도
도와 응답하심에 대한 간증이 있으면 나누어 보십시오.
2. 다윗이 이 시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게 된 사람, 곧 여호와와 의에 거하게 하신 사
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표현은 제사장의 특권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모든 성도들이 왕 같
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벧전 2:9), 성도 한 사람 한 사
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고전 3:16). 따라
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교회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 혹은 늘 교
회에서 일하는 교역자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3. 사람이 씨를 뿌리고 김을 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적당
한 물을 대어 주시지 않는 한 풍성한 추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
난 여름에 있었던 엄청난 폭우는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 주었습니
다. 나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나의 보
잘 것없는 힘에 의존해서 발버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